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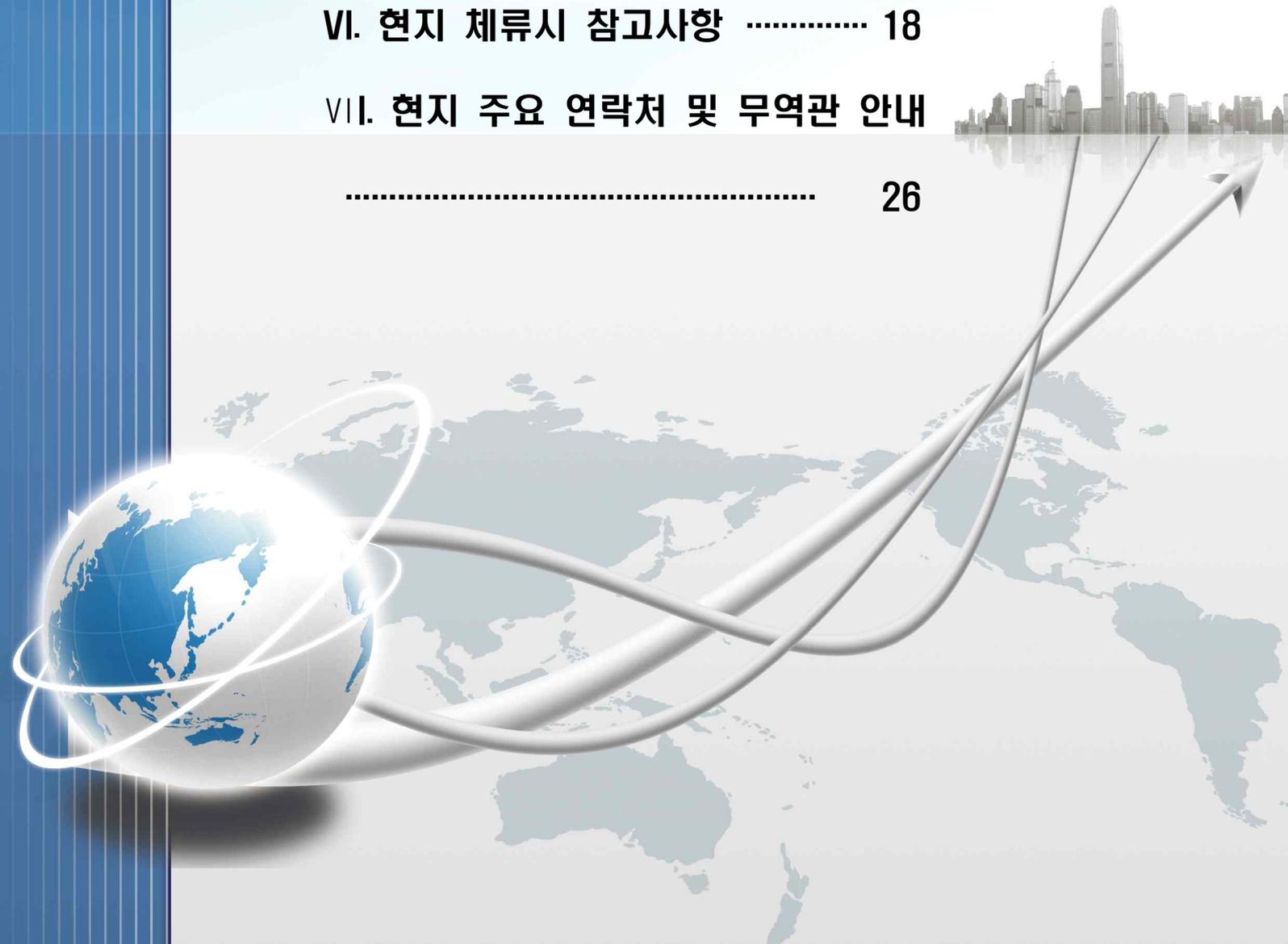


해외출장 가이드

에콰도르 키토 출장자료

【 목 차 】

I. 에콰도르 개황	01
II. 에콰도르 경제 현황	04
III. 에콰도르 무역 현황	08
IV. 에콰도르 투자 현황	10
V. 한·에콰도르 경제교류	12
VI.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18
VII. 현지 주요 연락처 및 무역관 안내	26





I. 에콰도르 개황



TRANSVERSE MERCATOR PROJECTION; CENTRAL MERIDIAN 78°07'W

Base 803258A (G00453) 8-11

자료원: CIA



1. 국가개요

국명	에콰도르 ▷영어명: Republic of Ecuador/현지어: Republica del Ecuador
건국(독립)일	1830년 5월 13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국가원수	▷Lenín Boltaire Moreno Garcés - 취임일 : 2017년 5월 24일 - 2017년 4월 2일 결선투표로 당선, 2021년까지 임기
수도	키토(Quito) ▷고도 2,850m, 북부 산악지대
위치 및 면적	▷위치: 남아메리카 서북부, 북쪽은 콜롬비아, 동/남쪽은 페루와 접경 ▷면적: 283,561km ² , 한반도의 약 1.3배[※남북간 725km, 동서간 640km] (자료원 : 에콰도르 통계청, 2020 기준) - 갈라파고스 군도 지역, 서부 해안(Costa), 중부 산악(Sierra), 동부 아마존(Oriente)
인구 및 언어	▷1천 7백만 64만 3천 54명(2020년 기준, INEC) ▷스페인어(공용어) 및 11개 부족어 (케추아, 슈아르 등)
종교	가톨릭(약 90%이상)
민족	메스티조 62%, 유럽계 7%, 원주민 25%, 흑인 3%, 기타 2%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임기4년, 2회 연임가능), 단원제(의회임기 4년)



2. 주요 경제지표

GDP	1,079억 달러
실질경제성장률	-0.48%
1인당 GDP	6,249.39달러
실업률(연평균)	4.33%
물가상승률	0.38%
화폐단위	US\$
환율	2000년 9월 이후 전반적인 경제 달러화 단행
외채	587억 달러
외환보유고	19억 0041만 달러
산업구조	농업(6.5%), 제조업(33.8%), 서비스업(59.7%) (CIA world factbook)
교역규모	(수출)2억 277만 달러 (수입)2억 175만 달러
주요교역품	수출: 석유화학제품, 수산물, 과일, 견과류, 육류제품, 화훼 등 수입: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기기, 의료용품 등
글로벌 경쟁력지수	3.91 (97위)
S&P 국가신용등급	SD
회계연도	- 해당 연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 (주의사항) 2018년 회계연도일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의미

자료원: IHS Country Report, Global Trade Atlas, 에콰도르중앙은행(BCE), 에콰도르 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2019년 기준 자료



II. 에콰도르 경제 현황과 전망

1. 최근 에콰도르 경제 현황

□ 석유 및 1차 산업의 높은 의존도

- 에콰도르의 경제는 석유부문이 GDP의 14%~20%, 수출소득의 절반 이상, 정부 수입의 20%~30%를 차지할 만큼 자원 의존도가 큼
- 커피, 새우, 바나나(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임) 등 1차 산업에 특화된 경제 구조이어서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등에 취약함
- 석유생산량은 2019년말 일일 56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일일 70만 배럴까지 증산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020년 일일 44만배럴로써, 2019년 일일 석유 생산량 53만배럴에 비해 약 16%가 감소함. 이는 올해 4월 발생한 송유파이프의 고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유가는 2019년 상반기 배럴당 57.20달러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배럴당 30.87달러로 약 46% 하락하였으며, 이는 에콰도르 공공재정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미국 달러 공용화폐화 조치

- 2000년 미국 달러 공용화폐화 조치는 거시경제안정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외부에서의 충격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힘든 취약점이 있음
- 2020년 코로나사태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수출유가 하락, 석유생산의 외국인투자 및 생산량 감소, 미국, 스페인 등에서의 해외송금 감소 등으로 국제 신인도 하락, IMF 지원, 관광사업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음



2. 주요 경제지표별 현황

□ 경제성장률 : 긴축정책 추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6.0 전망

- 에콰도르는 레닌모레노 대통령 정권 초기부터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IMF의 컨설팅을 지원받으면서, 금융지원을 꾸준히 추진해 옴.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9년 3월 IMF 등 6개 국제금융기관과 총 102억 달러를 3년 동안 지원받는데 합의했고, IMF 등의 금융지원 이후 달러의 자유로운 유통 보장, 노동시장 개혁, 정부부처 통폐합, 공무원 축소, 유류보조금 축소, 외화유출세의 단계적 폐지, 공기업 민영화 등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진행하고 있음.
- 연초부터 코로나19가 에콰도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IMF는 에콰도르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6.0% 이하로 전망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 : 하향 안정화 전망

- 달러공용화 정책 도입이전에는 물가상승률이 100%에 육박하는 등 인플레이가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2000년 미국 달러 공용화 제도를 도입한 이래 물가상승률 하향 안정화추세가 지속
- 2009년 이후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경제성장세 둔화 및 이에 따른 국내수요 감소,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다시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함. 그러나 2014년 이후 국가 경제악화로 인하여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62로 2020년 5월에 비해 0.62% 하락했다고 발표

□ 대외 부문 : FTA 확대 및 태평양동맹(PA) 가입 추진

- EU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FTA서명함. 태평양동맹(PA)가입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추가로 미국, 멕시코, 한국,



터키와의 통상협정 협상의사를 표명함. 이외에도 금년 일본과의 수교 100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보완협정관련 협의 개시

- 2018년 미국 부통령이 에콰도르를 방문하였고, 최근 에콰도르 합참의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군사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
- 특히 2019년 5월 우리나라 총리가 에콰도르 방문하였고 모레노 대통령과 단독회담에서 한-에콰도르 관계평가, 교역투자 증진, 문화교류,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 이후 부통령과는 교역·투자, 인프라·신재생에너지, 개발협력, 해양협력, 문화, 외교연수원간 협력 등 실질협력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 2020년 8월 13일 에콰도르와 칠레는 새로운 무역 통합 협정을 체결함. 본 협정에는 무역 규제, 공공 조달, 통신, 전자 상거래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에콰도르 제품은 무관세로 칠레에 수출할 수 있음.

3. 경제정책

□ 재정정책 : 에콰도르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4가지 방안 모색

- 코로나19의 영향과 이미 겪고 있던 국가재정위기로 인해 에콰도르의 올해 재정 적자는 130억 달러를 기록함. 이 중 40억 달러는 다자간 신용 대출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임.
 - 1) 국제 채권자들과의 재협상을 통한 부채 삭감 : 원금 및 이자 탕감,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율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이미 채권단 50%의 동의를 확보하였음.
 - 2) 국제통화기금(IMF)와의 새로운 협정서 체결 : 채권 조정 협상의 일환으로 일부 채권자들은 에콰도르가 국제통화기금과 새로운 신용 협정을 체결 하길 요구함.



- 3) 중국과의 채무 조정 협상 : 2020년 1월 에콰도르 대표단의 중국 방문 이후, 에콰도르 전체 부채의 67%인 584억 달러 규모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채무 조정을 구체화하고 있음.
- 4) 중국과의 신용 거래 2건 : 2020년 10월까지 2개의 중국 신용 은행으로부터 총 24억 규모의 대출을 협상중이며, 이 중 한 건은 에콰도르 원유 5천만 배럴을 중국 회사 Zhenhua Oil에 사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함.

□ 공공재정 조정법 제정

- 에콰도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된 정책목표 중 하나인 재정개혁과 관련, '공공재정 조정법(Ley de Ordenamiento de las Finanzas Publicas)'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는바, 지난 5.16 국회 수정의결 후 행정부에서는 일부 거부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재의 중임.
 - 자의적·임의적 재정 관리의 위험을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구조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은 △재정 규칙 명문화, △재정정책의 기관별 권한·책임 명확화, △국가재정조정위원회 설립, △공공기관의 지출증가 상한선 수립·공표, △국제 유가 변동성 대비 보험 가입, △예산 지출 증감 비율 축소(15%→5%), △예산안 편성시 비상 대비 예비비(3%) 및 안정기금 신설, △재경부 단기채권(CETES) 발행 8% 이하 제한, △공공부채/GDP 상한선(현 최대 40%)의 매 5년 변경(최대 45%) 등임.



III. 에콰도르 무역 현황

1. 수출입 동향

□ 원유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약 30%)

- 국제 유가 변화에 따라 수출액의 변화가 큼. 또한 에콰도르는 석유 정제 시설이 부족해 정유를 주변국(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므로, 국제 유가와 수출액에 발맞춰 수입액 또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
- 에콰도르의 무역 수지는 2004년 이후 흑자로 돌아서 2008년까지 소폭의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수출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보다 높아 적자로 계속 이어지며, 2019년 유가 하락이 이어지고 수출이 조금 앞지르지만 2020년엔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입이 늘고 있음.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US\$/백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18,365 (-28.60)	16,797 (-8.54)	19,122 (13.84)	21,606 (12.99)	22,770 (2.90)
수입	21,375 (-22.32)	16,188 (-24.26)	19,844 (22.59)	22,365 (16.00)	21,750 (-2.73)
무역수지	-3,009	608	-722	-1,413	1,020

주: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입 품목

- 원유와 바나나, 양식새우, 참치, 절화, 커피, 카카오 등 1차산업위주로 에콰도르 주요 수출 품목이고 특히 세계 가공참치 수출의 10%를 차지하며, 태국에 이어 2위의 수출국임.

- 에콰도르의 수입품 1, 2위는 정제된 석유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은 탓에 자동차, 전화기, 컴퓨터 등의 기계류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건설업 및 인프라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건설용 기계 및 차량 등의 수입이 증가세에 있음. 최근엔 의약품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

2. 주요 교역 상대국

- 에콰도르의 1위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액 대비 차지 비중이 2019년 기준 32%를 기록했음. 그 뒤를 페루, 중국, 칠레, 파나마 등의 국가들이 잇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3위, 러시아가 6위를 차지함. 유럽 국가 중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9위, 10위를 기록하고 있음. 2018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급격이 늘어 전년대비 93% 증가함.
- 2019년 기준 에콰도르의 1위 수입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입액 대비 차지 비중은 23%로 점점 감소 중이고 2위인 중국의 수입액 대비 차지 비중은 점점 증가해 2018년 16%를 기록함. 그 뒤를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 파나마, 브라질, 페루 등이 따르고 있음. 한국은 2018년 기준 에콰도르의 8위 수입국임.
- 에콰도르-EU 무역협정이 2017년 1월부터 발효되어 에콰도르의 주력 수출품인 가공참치, 새우, 커피, 절화, 카카오 등이 무관세로 유럽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유럽산 주류, 노트북, 건축자재, 농기계, 섬유기계 등도 무관세로 에콰도르에 수입되고 있음. 그외 품목은 산업에 미치는 민감도에 따라 5, 7, 10, 1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IV. 에콰도르 투자 현황

1. 투자 동향

- 외국인 투자통계를 발표하는 에콰도르 중앙은행이 순유입량(net flow)에 기반한 수치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확한 규모 및 증가량 추이를 알기는 어려움. EIU country report의 추정치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는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운영과 에너지 부문의 국영화 정책 등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US\$/백만, Net Flow)

산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766,452	1,331.25	754.61	624.55	1,455.7	966.15

주 : 2020년 7월 기준

자료원 : 에콰도르중앙은행(BCE)

- 산업별로는 광업 분야에 자본이 몰리고 있으며, 에콰도르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농업, 수산업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인건비가 인근 중남미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산업 시설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지 않아 제조업에의 투자는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임.
- 2020년 8월 19일 정부령 1130호를 통해 레닌 모레노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에콰도르에서의 신규 생산 투자의 경우 제공되는 소득세(IR) 및 외화 유출세(ISD) 면세 혜택의 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발표함.
 - 해당 법안은 2018년 8월 생산촉진법(La ley de Fomento Productivo)의 내용으로, 식품, 농림, 금속 기계, 석유 화학 및 관광 등의 부문에서 신규 투자에 면세 혜택을 제공함.
 - 경우에 따라 소득세는 8년에서 15년까지 면제, 해외 송금시 발생했던 5%의



외화 유출세의 경우 자본재, 원자재 및 외국인 투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함. 이번 조치로 인해 이에 대한 기간이 각 2년씩 연장됨.

2. 한국의 투자 동향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업종대분류	신고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수	투자금액
20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54	1	54
2019	제조업	2	2	145	4	112
	도매업	1	1	0	1	0
2020	제조업	0	0	0	2	32

주 : 2020년 3월 기준

자료원 : 수출입은행

-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이 꾸준히 지원되고 있음. 2015년 갈라파고스 제도 산타크루즈 섬에 1.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와 홍보관 건설을 지원한 바 있고, 2018년부터 산크리스토발 섬에 1.4MW 태양광 및 1MW 에너지 저장장치 건설을 진행 중
- 현재는 양국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까지 5차 협상이 완료되었으나 이후 진척사항 없음. 2019년 우리나라 총리의 에콰도르 방문 이후 양국 모두 SECA 협상 재추진에 대한 의사를 표명함.



V. 한-에콰도르 교역 동향

1. 최근 9년간 교역동향

-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에콰도르로의 수출이 수입을 훨씬 상회하는 비대칭적인 구조임. 교역 규모 및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대 에콰도르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수지가 반으로 줄

< 2010~2019 한-에콰도르 교역 동향 >

(단위 : US\$/천, %)

구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0	887,194	102.4	12,254	21.9	874,940
2011	886,612	-0.1	30,634	150	855,978
2012	856,768	-3.4	39,507	29	817,261
2013	919,924	7.4	48,399	22.5	871,525
2014	811,542	-11.78	342,493	607.64	469,049
2015	641,282	-21.0	245,724	-28.3	395,558
2016	434,241	-32.3	94,246	-61.6	339,995
2017	608,864	40.2	127,802	35.6	481,061
2018	781,873	28.4	116,893	-8.5	664,980
2019	479,021	-35.6	250,030	136.2	229,56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ita.net)

작성기준일 : 2019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주요 수출품목

< 對 에콰도르 주요 수출품 >

(단위 : US\$/백만, %)

순위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19		20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79	-35.6	125	-65.6
1	7411	승용차	102	-59.9	19	-64.1
2	7420	자동차부품	56	-36.1	12	-55.2
3	1332	경유	56	0	10	-53.2
4	1331	휘발유	30	-64.2	10	-50.0
5	2262	의약품	21	17.1	9	60.4
6	3109	기타 플라스틱 제품	19	-7.7	7	-16.5
7	2140	합성수지	17	-57.2	6	-14.4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0	-31.0	4	224.07
9	0411	참치	13	-28.2	4	-64.8
10	2284	과산화수소	5	15.5	4	49.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ita.net)

주 : MTI 4단위 기준, 순위는 2020년 5월 기준

- 한국과 에콰도르는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역 잠재력이 큼. 한국은 에콰도르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에콰도르는 한국에 농수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수출품 중에서는 특히 자동차 관련 품목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러나 2012년 이후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데 이는 유럽산의 무관세 수입, 중국산이 확대인 것으로 앎. 그 외 의약품수입이 늘어나고 있음.
- 요즘 에콰도르 신세대 사이에 한류가 하나의 주류 문화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음. 화장품, 한국식품, 미용의료기기 등 한류관련 상품의 현지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수입품목

< 對 에콰도르 주요 수입품 >

(단위 : US\$/백만, %)

순위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19		20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50	136.2	41	-
1	0421	석유	67	-1.9	22	-30.4
2	0116	새우	23	-27.9	7	-48.1
3	6221	동피 및 스크랩	24	272.5	7	-37.9
4	0413	갈치	2	615.6	2	377.9
5	0451	어육	2	-32.3	1	-46.7
6	6211	알루미늄 스크랩	1	181.5	1	-5.9
7	0151	커피	1	9.0	0	155.6
8	0429	기타잡각류	0	0.0	0	0.0
9	0125	견과류	1	-11.7	0	-23.7
10	0311	원목	0	0.0	0	0.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ita.net)

주 : MTI 4단위 기준, 순위는 2020년 5월 기준

- 한국의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은 대부분 농수산물으로, 이 중 새우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동피 및 스크랩, 어육, 커피, 수산가공품, 견과류, 과일 등이 수입되고 있음. 2018년까지는 에콰도르의 최대 수출품인 원유는 거의 수입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 2019년 들어 수입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원유 수입이 전체 품목 중 1위를 차지하였음.

2. 경제 동향과 전망

□ 경제개혁

- 모레노 대통령은 2020년 5월에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신규 경제조치를

발표하였음. 대통령은 금번 조치로 총 40억불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감축 9.8억불, 재화/용역 지출 감축 4억불, 투자지출 감축 13억불 및 4월부터 진행중인 외채 재조정에 따른 지출 절감 13억불임

- 1) 연료값 인하 : 유가하락에 따라 일반휘발유(gasolina extra) 및 바이오연료(ecopais) 가격을 갤런당 \$1.75로, 경유 가격을 \$1로 인하
- 2) 공공부문 근무시간 단축 : 교사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 일반 공무원 근로시간 2시간 단축 추가, 그리고 단축시간만큼 급여 축소.
- 3) 정부규모 축소 : 10개 공사를 통폐합. 통폐합 대상은 TAME(항공), Inmobiliar(공공 부동산 관리), Ferrocarriles(철도), Siembra(구 야차이공사-지식혁신촉진), Medios Públicos(공영방송), Correos del Ecuador(우체국) 등.
- 4) 중소기업 대출 촉진 : 생산 재활성화를 위해 10억불을 투입해 "Reactivate Ecuador"(에콰도르를 다시 살리자)라는 명칭의 대출기금을 조성 예정.
- 5) 해외공관 규모 조정
- 6) 안보예산 감축 : 에콰도르의 모든 안보기능을 갖고 있는 국가안보위원회 (Consejo de Seguridad del Estado)의 예산을 5월 말까지 10~15% 감축할 예정
- 7) 공공채무 재조정

- 2020.7. 에콰도르 정부의 공공부채에 대한 재조정안 제안 내용 발표
 - 대상 : 15.4억달러의 자본 감소를 포함한 173.75억달러의 부채 재조정 및 자본납입에 대한 5년의 거치기간, 이자에 대한 2년 거치조건 포함
 - 경제금융부에서는 이 제안에는 더 나은 금융조건을 보유한 4개의 신규 채권(3월과 8월사이에 축적된 이자 채권 포함)에 의한 10개의 글로벌 채권 대환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
 - 제안내용에 따르면,
 - 1) 평균 이자율이 9.2%에서 5.3%로 하락
 - 2) 상환기간이 6년에서 12년으로 연장
 - 3) 3월부터 8월사이의 연체이자 약 10.6억달러의 납입 연기
 - 4) 2026년에서 2030년사이에는 이자율 0% 지급
- 에콰도르 재무부는 올해 5월에 2018년에 골드만삭스 및 Credit Suisse와 채

결한 약 10억달러 규모의 두 개의 환매조건부채권을 2020년 4월에 청산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Margin Call을 통해서 약 762.9백만 달러를 축적해왔으며, 나머지는 국채의 일부를 담보로 220백만 달러를 상계 처리했다고 발표함.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공공 부채는 2020년 4월 현재 총 57,181백만 달러로 GDP의 52%에 달함.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동향

□ 한-에콰도르 통상협정 추진

- 2016년 4월, 에콰도르와 한국 간의 통상협정 개시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동 협정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SECA)으로써 양국의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여, 양국간 기술 및 지식을 교류협력을 포함한다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음.
 - 5차 협상이 2016년 키토에서 열렸으며, 이후 진척이 없었으나 최근 협상 재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에콰도르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회원국 가입 협상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에콰도르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

- 에콰도르는 최근 4년간 평균 5%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부터 유가하락, 경제불황 및 대지진으로 경제침체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남미 3대 석유 부존국가이자 향후 플랜트 분야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임
-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규모는 9억 달러('19년 기준)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인



반면,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품은 원유, 새우, 동피 및 알루미늄 등으로 양측은 상호 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무역협정 체결 시 양국간 교역과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VI. 현지 체류시 참고사항

□ 교통

- 택시
 -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따라 계산되지만 평균거리 운행시 1.5~2달러의 요금이 부과됨. 야간에는 2~3달러로 무선호출 시스템을 갖춘 택시회사나 호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함. 추가요금은 대체로 1달러이고 택시호출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음

- 시외버스
 - 버스는 에콰도르 내 여행에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 교통수단임. 요금은 거리와 버스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르고 급행버스는 중간 정류장 없이 바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며 화장실, TV, 뒤로 젖혀지는 의자, 간식 등 최신설비를 갖춘 버스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음. 각 도시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수 많은 목적지로 가는 버스들이 있으며 일부 목적지로 가는 버스는 별도의 터미널을 갖춘 경우도 있음

- 철도
 - 에콰도르에 철도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운송수단으로서보다는 관광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사증

-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 등의 단순 체류 목적이면 3개월 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 외교관 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체결로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근무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 관용여권 소지자는 3개월 체류가 가능함



☐ 전화

- 전화: 국가코드 593 + 지역코드 + 전화번호
- 22개 주 별 코드 : Azuay(07), Bolivar(03), Carchi(06), Canar(07), Chimborazo(03), Cotopaxi(03), El Oro(07), Esmeraldas(06), Galapagos(05), Guayas(04), Imbabura(06), Loja(07), Los Rios(05), Manabi(05), Morona(07), Napo(06), Orellana(06), Pastaza(03), Pichincha(02), Sucumbios(06), Tungurahua(03), Zamora(07)
- 국외에서 에콰도르로 전화할 때는 지역코드 맨 앞의 0은 생략함
예) 피친차의 507560 : 593 2 507560을 누름. 그러나 에콰도르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화할 때는 0을 눌러야 함

☐ 화폐 및 외환소지 관련 유의사항

- 현재 에콰도르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미국의 달러화로 지난 2000년에 미국 달러화를 자국통화로 하는 달러화를 단행함
- 1884년부터 법정통화로 사용된 수크레화(Sucre, S/, ECS)는 2000년 1월 9일, 1US\$ 당 25,000수크레의 환율에 의해 미국달러화로 전면 교체되었음. 지폐는 100달러권, 50달러권, 20달러권, 10달러권, 5달러권, 1달러권이 있으며 동전으로 1달러, 50센트, 25센트, 10센트, 5센트, 1센트가 있음
- 해외반출시 소지 금액이 미화 10,000달러 초과 시 외환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함

☐ 전압

- 전기는 110V, 60Hz임



□ 시차 및 기후

- 에콰도르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기후대가 있음
 - 해안지역: 연중 25-31°C 의 기온을 유지하며 12월-5월의 우기에는 습하고 더우며 나머지 기간은 건기임
 - 고산지역: 고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 연중 아열대 기후를 나타내 고도가 높은 지역은 춥고 인구밀집 지역의 기온은 13-18°C임
 - 아마존지역: 대체로 습기와 비가 많고 기온은 23-26°C 를 유지. 10월-12월 중에는 건기임
 - 갈라파고스지역: 23-32°C 의 건조한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25°C임
- 의복
 - 고산지역: 따뜻한 의상이 필요함. 야간에는 두텁지 않은 코트가 좋음
 - 해안지역: 해안지역, 갈라파고스, 아마존 지역은 모두 가벼운 옷차림이 좋음
- 시차
 -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 (뉴욕과 동일 시간대)

□ 주요 관광지

○ La Mitad del Mundo: 적도탑

1736~42년간 지구의 모양을 연구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에 온 프랑스 측지단의 적도 발견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화산석으로 만든 30m높이의 피라미드형 기념탑임.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잉카시대 이전부터 적도를 Inti Nan(태양의 길)이라 칭하며 지기가 충만한 곳으로 약초재배 및 휴양지로 삼았음.





○ **El Panecillo(엘 빠네시쵸) 언덕**

언제부터인가 3,000m대 언덕 위에 태양의 신전이 있었으나 16세기 초 Quito 왕국의 마지막 장군 Ruminahui가 잉카와의 전쟁 동안 파괴했음. 현재는 스페인 조각가 Agustin이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에콰도르 식민지파 조각가 Bernardo de Legarda의 Virgen de Quito를 모델로 1955년 디자인 한 7,000조각 이상의 청동, 알루미늄, 주석, 철 등으로 구성된 키토 성모상 (높이 31.5m)이 도시를 수호하고 있음



○ **Palacio Presidencial, Plaza de la Independencia: 대통령궁과 독립광장**

궁전건설 대통령의 성을 따라 Carondelet 궁이라고도 함. 궁전정면은 아마존강 발견 기념벽, 독립광장에는 에콰도르 독립 100주년 기념비가 있음



○ **San Francisco 성당(수도원)**

남미지역에 밀재배법을 도입한 San Francisco사제가 스페인의 Palacio Escorial 성당을 모방, 1534년부터 건축한 남미 최고의 성당임. 현재의 성당은 지진에 의한 건물 파괴로 당초의 건축 모습과는 건축양식 등이 차이가 있음. 성당 내부의 황금색 계단, 식민지 시대의 조각과 그림들이 걸작임. 특히 화가 Legarda의 은날개를 단 키토의 성모마리아(La Virgen de Quito) 그림이 유명함



○ **Fundacion Guayasamin: 과야사민 박물관**

1919년 키토 태생의 중남미의 대표적 화가인 Oswaldo Guayasamin 개인



미술관으로 자신의 작품, 보석, 민예품, 프레 콜롬비아 및 스페인 식민시대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음



○ **Iglesia de San Agustin: 성 아구스틴 성당**

17세기에 건축된 수도원 겸 성당으로 성당입구에 돌로 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고풍스런 성당. 수도원내 소형 박물관에는 스페인 식민지시대(16~18세기)와 에콰도르 독립시기(19세기 초)의 회화들이 전시. 성당 내 별실에서 1809년 8월 10일 에콰도르 독립선언문이 서명되었음



○ **Museo del Banco Central: 중앙은행 인류고고학 박물관**

잉카시대 이전과 잉카시대(BC4000-AD1533까지)의 유물과 함께 스페인 식민지시대 가구, 그림 등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음. 특히 잉카시대 도자기와 금제가면 등이 볼만함



○ **La Compania 성당**

17세기 초에 건축된 예수회 성당으로 바로코식의 건축양식과 내부 장식이 일품이며 키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임. 1645년 서거한 에콰도르 최초의 성인 Mariana de Jesus 성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으며 금세 초에 일어난 여러가지 기적과 관계되어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는 Dolorosa del Colegio 성모마리아상이 모셔져 있음

○ **La Catedral 성당**

에콰도르 역사와 가장 인연이 깊고 남미의 가장 오래된 성당중의 하나로 16세기에 전통양식으로 건축이 시작되어 성당 첨탑과 현관 입구는 20세기에 완성. 성당 건물 외벽에는 키토시 건설 주역 6인의 명패가 부착되어 있고 아마존강 발견 기념문도 새겨져 있음

□ **식당 정보**

○ **한식** : 1인당 \$10-20 정도

- 본가: Av. De los Shyris N43-85(entre Rio Coca y Tomas de Berlanga), Quito / ☎ 2246-893
- 고향집: Joaquin Paredes y Jose Maria Langada N45-208, Quito / ☎ 3318-016
- 소반 : Av. Coruña y Whymper, Quito / ☎ 2901-828
- 수라: Av. De los Granados y Av. Paris, Quito / ☎ 2277-285

○ **일식**

- Noe (1인 \$30): Isabel La Catolica 1245 y Coruña, Quito / ☎ 2895-404
- Tanoshi (1인 \$30): 12 de Octubre 1820 y Cordero, Swissotel / ☎ 2567-600

○ **중식/동양식 퓨전**

- Happy Panda: Isabel La Catolica N94-464 Y Cordero, Quito / ☎ 2547-322
- Gran Shanghai: Whimper N27 - 138 y Orellana, Quito / ☎ 2229-256
- Zao: Av. Eloy Alfaro N10-16 y San Salvador, Quito/☎ 2523-496, 2505-203
- Long Fong : Perez Guerrero 422 entre Versailles y America, Quito / ☎ 2221-802



○ 전통음식

- Tianguéz (1인 \$10): Plaza de San Francisco, Quito / ☎ 2570-233
- Mea Culpa (1인 \$40): Chile y Venezuela, Quito / ☎ 2951-190
- Pim's Panecillo (1인 \$15): Melchor Aymerich, Quito / ☎ 3172-595
- Mi Cocina: Av. 6 de Diciembre y Alemán(페가막시), Quito / ☎ 2241-213

○ 인터내셔널

- El Ventanal: Calle Carchi y Nicaragua, Quito / ☎ 257-2232
- Mosaico: Manuel Samaniego N8-95 y Antepara, Itchimbía/ ☎ 254-2871
- Chez Jerome : Wymper N30-96 y Coruña, Quito / ☎ 6000-69



VII. 현지 주요 연락처 및 무역관 안내

□ 현지주요연락처

경찰서	키토 : 02-394-4040 과야길 : 04-229-0545 갈라파고스(산타크루즈) : 05-252-6401
외국인 전용병원	Metropolitano : 02-399-8000 Pichincha : 02-299-8700 Vozandes : 02-226-2142 Hospital Guayaquil : 04-284-4587
911상황실	911

□ 무역관 위치안내 및 전화번호

- 주 소 : Av. Coruña N27-88 y Av. Orellana. Plaza Coruña 401-402.
Quito, Ecuador
- 전화번호 : 593) 2-2237-111 / 2521-559, 팩스번호 : 593) 2-2908-450

□ 공항에서 오는 법

- (택시) 키토국제공항에는 키토무역관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공항택시 이용이 일반적임. 택시 승차 후 Av. 꼬류냐(Coruña) y Av. 오레야나(Orellana)로 주소를 말하면 됨. 택시요금은 \$30 수준
- (공항버스) 키토국제공항에서 공항버스(US\$ 8)를 타면 구공항에 도착해서 택시 승차 후 Av. 꼬류냐(Coruña) y Av. 오레야나(Orellana)로 주소를 말하면 대부분 기사들이 아는 곳이고, 택시요금은 \$5 수준임.

□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대사관

- 주소 :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Av. Amazonas y Union de Periodistas Edificio Eurocenter, Piso 4, Quito, Ecuador
- 대표 E-mail : ecuador@mofat.go.kr



○ 대표 전화 : 593) 2-352-0866/ 0874~6

□ 무역관 약도



끝.



www.kotra.or.kr